

주요채소 출하조정 특별사업추진 적정생산, 수급 및 가격안정도모



—채소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진 용 태 농림수산부 채소과장

1. 채소류 수급현황

가. 채소류의 생산동향

채소류의 생산은 다른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강수, 기온등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환경 및 지역별로 재배형태가 한정되어 있지만, 최근 신품종 개발효과가 재배기술 발달 및, 피복재배용 필름과 같은 우수한 생산자재의 공급으로 점차 작형이 다양화, 세분화되어 연중

안정적 생산공급이 가능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량은 식부면적과 단위수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재배면적은 채소류 가격과 수익성 및 경합작물의 재배면적등에 좌우되고 단위수량은 기후조건, 생산기술수준 및 투입요소수준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주요 채소류의 생산동향을 보면 표1과 같다.

채소류 전체 재배면적은 75년

표 1. 주요 채소류 생산동향

(단위: 천ha, 천톤)

	'75		'80		'85		'89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합계	246	4,706	368	7,481	356	7,543	319	8,314
배추	39	2,263	48	3,040	41	2,790	39	2,694
무	36	1,370	49	1,973	38	1,586	37	1,756
고추	99	128	133	125	118	165	72	149
마늘	14	103	37	253	39	256	39	357
양파	4.2	95	7.7	275	10.9	440	10.3	558
기타	50.8	671	84.3	1,598	90.3	1,846	84.7	1,855
시설채소	3	76	9	217	19	460	37	945

※ 기타는 오이, 가지의 19개 품목

※ 시설채소(비닐하우스)는 '88부터 표본통계, 이전은 행정통계임

246천ha에서 80년 368천ha까지 증가하였으나, 그후 80년대에 들어서는 정채내지 다소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품목은 마늘, 양파, 시설채소등이다. 고추는 인력부족등의 원인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무, 배추는 전년도 가격동향에 따라 재배면적이 증감되고 있다.

나. 채소류의 소비동향

채소류의 소비는 인구규모, 가격, 국민소득수준, 기호성향 및 대체농산물의 가격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채소류의 소비는 그 상품적 특성, 즉 부패·변질이 쉽고 가치에 비해서 부피가 커 장기저장 및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수출입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은 국내에서 대

표 2. 채소류 1인당 소비량(년간)

(단위: kg)

	'75	'80	'85	'88
합계	62.5	120.6	98.6	117.3
배추	25.7	47.8	35.6	35.5
무	15.5	31.0	23.1	37.1
고추	2.7	2.5	1.5	2.4
마늘	1.8	4.0	3.8	3.5
양파	2.0	5.4	7.8	9.4
기타	14.8	29.9	26.8	39.4

※ 자료: 식풍수급표(KREI), 순식기준

부분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채소류의 1인당 연간 소비동향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75년 채소류의 연간 소비량은 1인당 62.5kg에서 '85년 120.6kg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그후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무, 배추등 기본 채소류의 소비는 안정세인 반면 과채류등 고품질의 채소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채소류 유통실태

가. 유통기구

유통기구는 유통경로상 거래를 담당하는 유통주체로서 유통단계에 따라 수집기구, 중계기구, 분산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수집기구

○ 소규모 소량생산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발달하는 유통조직으로 산지수집상, 반출상, 산지농협, 생산자의 임의단체와 대도시의 도매상, 소매상, 소비단체의 수집대리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들의 역할은 주로 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자로부터 채소류를 수집하여 중계시장이나 분산시장으로 반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도, 소매기능을 겸하기도 한다.

2) 중계기구

○ 중계기구는 수집과 분산의 두 기능을 연결하는 유통조직으로 법정 도매시장과 농협공판장 및 유사 도매시장으로 구분된다.

○ 법정 도매시장은 지정도매인인 도매시장 회사와 중매인, 매참인, 경매사, 하매인 등으로 (농협 공판장도 동일), 유사도매시장은 위탁상과 중간도매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채소류의 중계기구는 광범위한 산지로 부터 수집경로를 통해 대량 수집되어 온 상품을 타지역이나 또는 그 지역의 도·소매상에게 신속하게 분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3) 분산기구

○ 중계기구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분산하는 유통조직으로 도매상, 중간도매상, 슈퍼마켓, 연쇄점, 직판장 및 일반 소매상등이 그 기

능을 담당한다.

나. 주요품목별 유통경로 및 마진

○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이 유통되어 가는 과정으로 우리나라 채소류의 주 유통경로는

생산자→수집상→도매시장→중간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의 5단계가 대표적이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1~2단계가 짧다.

○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및 마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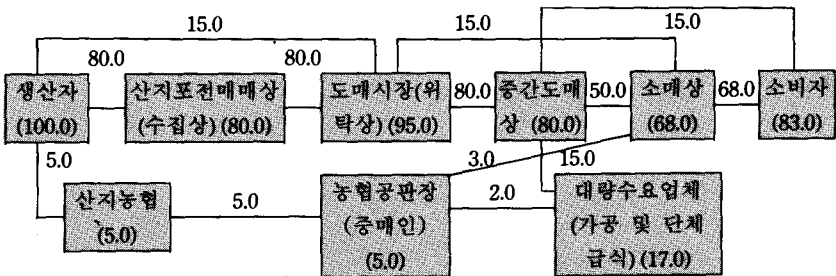
1) 무(이천-서울)

○ 단계별 유통마진(조사기간 '89. 11. 17-11. 18)

(단위 : %)

구분		구성비	단계별마진	구성비
농가수취율		25.6	총 마진	74.4
유통마진	○ 총마진	74.4	수집단계	15.1
	-비용	40.1	위탁도매단계	3.5
	-이윤	34.3	중간도매단계	15.6
			소매단계	40.2

○ 유통경로



* ()내는 물량점유비임

■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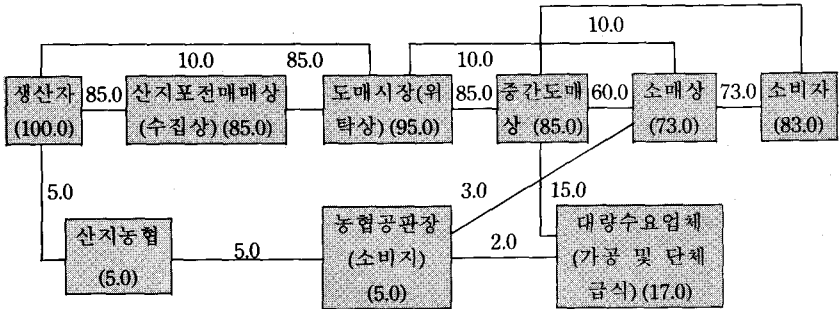
2) 배추(이천-서울)

○ 단계별 유통마진(조사기간 '89. 11. 17-11. 18)

(단위: %)

구 분		구성비	단계별마진	구성비
농가수취율		27.4	총 마 진	72.6
유통마진	○ 총마진	72.6	수 집 단 계	13.1
	-비용	37.4	위탁도매단계	3.5
	-이윤	35.2	중간도매단계	18.1
			소매 단 계	37.9

○ 유통경로



* ()내는 물량점유비임.

3) 고추(영양-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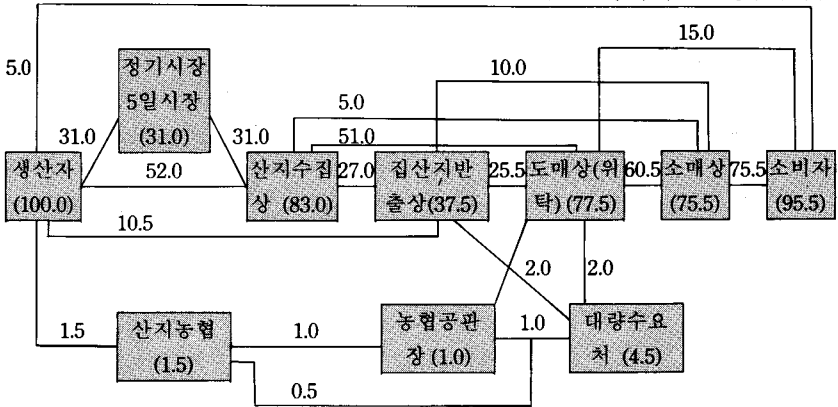
○ 단계별 유통마진(조사기간 '89. 10. 26-10. 31)

(단위: %)

구 분		구성비	단계별마진	구성비
농가수취율		66.7	총 마 진	33.3
유통마진	○ 총마진	33.3	수 집 단 계	5.9
	-비용	11.3	도매 단 계	3.6
	-이윤	22.0	소매 단 계	23.8

○ 유통경로

* () 내는 물량점유비임.



4) 마늘(서산-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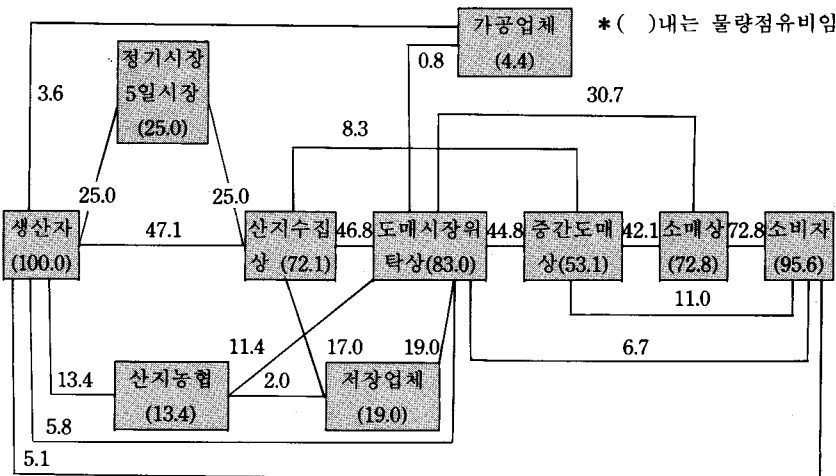
○ 단계별 유통마진(조사기간 '89. 7. 31-8. 6)

(단위: %)

구분	구성비	단계별마진	구성비	
농가수취율	63.0	총 마진	37.0	
유통마진	○ 총마진	37.0	수집반출단계	11.4
	- 비용	11.0	위탁도매단계	5.6
	- 이윤	26.0	중간도매단계	4.0
			소매단계	16.0

○ 유통경로

* () 내는 물량점유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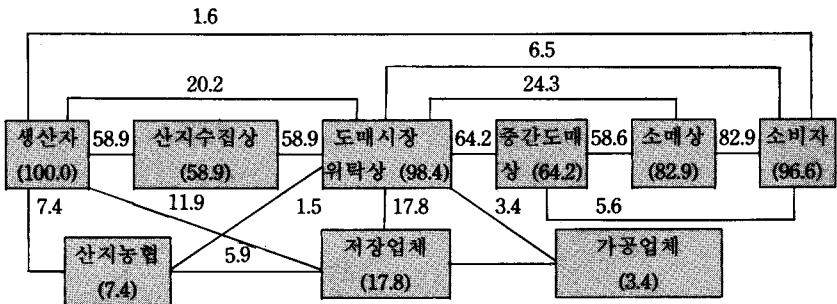
5) 양파(창녕-서울)

○ 단계별 유통마진(조사기간 '89. 7. 31-8. 6)

(단위 : %)

구 분		구성비	단계별마진	구성비
농가수취율		39.2	총 마 진	60.8
유통마진	○ 총마진	60.8	수집반출단계	10.0
	-비용	35.4	위탁도매단계	3.7
	-이윤	25.4	중간도매단계	18.8
			소 매 단 계	28.3

○ 유통경로



* ()내는 물량점유비임

3. 채소유통의 문제점

가. 중간 유통마진의 과다

농수산물은 생산, 유통상의 특수성과 신선도 유지가 곤란하여 유통마진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실제 90년 5월 농림수산부 채소과에서 배추의 유통마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남 홍성에서 포기당 400원에 구입, 서울 소매상에서 1,300원에 판매됨으로써 유통마진액은 900원 (서울 소매가-산지 구입가 400원)이

고 유통마진은 69% [1,300/1,300-400×100]였다.

유통 마진액 900원(100%)중 수확, 상하차, 수송, 선별, 감모등 직접유통비용이 500원(59%)이고 간접유통비용을 포함한 상인의 이윤은 370원(41%)이었다.

나. 유통상의 특수성

채소류는 부패, 변질이 쉽고 부피가 커서 유통비용과 감모량이 많이 생기며 선별·포장이 어렵고 저장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규격화, 등급화 곤란으로 유통과정에서 많은 손질이 필요하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협을 통한 출하가 저조한 이유로는 까다로운 등급기준과 조합운영의 관료적 운영체계, 거래시 농민소외, 상인보다 가격신축성이 없고 현금결제상 상인보다 불리하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다. 수급의 불안정

생산이 자연조건등 기상여건에 크게 의존되므로 계획생산및 가격유지가 곤란하고 생산의 불

안정, 판로와 가격불안으로 채소류는 포전거래(발떼기)를 많이 하는 실정이다.

포전거래는 농가와 상인 쌍방의 필요에 의해 행하여지므로 현실정으로서는 이들의 일방적인 금지조치 보다는 등급·표준화실시, 생산기반 확충, 유통금융 확대, 시장정보기능 강화등 생산 및 유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라. 소비지의 유통시설부족 및 소매단계의 유통마진과다

대도시 공영 도매시장 건설이 부진(15개소중 5개소 사업 미착수)한 실정이고,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과다·과소 반입시 수급이나 가격조절이 곤란한 형편이다. 또한 인건비 과다, 점포임대료와 가계비등의 상승으로 생계유지형 영세 소매점포의 유통마진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 기능 및 제도상의 문제점

생산자 단체의 유통부문 참여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유

통신타는 국민의 상거래 관습과 직결되어 있어 이의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4. 유통개선 대책

가. 농협의 발매기 추진대책 강구

주요 채소의 출하조정 특별사업 추진으로 농협이 발매기로 수매하여 출하시기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대상품목은 무·배추로서 생산예정량의 20%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요재원 200억:농안기금 50%, 농협자금 50%)

나. 생산출하조정 약정제 실시

마늘, 양파등은 생산출하조정 약정제를 실시하여 파종기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하고, 생산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정면적으로 조정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꾀하겠으며 점차 고추등 여타 채소로 품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소요재원은 농안기금

(80%)과 생산자 단체(20%)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다. 적정생산 및 가격유지

농업관측과 유통예고제 활성화로 적정생산, 수급안정 및 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다. 즉 관측기법개발, 관측전담요원 확보 및 관측결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정보의 수집과 분산체계 확충이 요구된다.

현재 고추는 12·1·3월, 마늘·양파는 7·8·9월 각 3회, 가을무·배추는 8월에 농업관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유통예고하고 있다.

라. 채소류 주산단지에 대한 집중투자 방안 검토

밭에 대한 경지정리·관배수 시설·재배사(栽培舍) 반출도로 개설등에 중점투자하며 재배특기 지도사를 주산단지에 고정배치하여 재배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및 공동출하 확대

유통사업 위주로 농협기능을

조정하여 공동판매·공동계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단협당 1개 품목)하고 유통사업 손실보전기금을 확대 조정(30→1,100억원)하며, 또한 단협 산하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발전적으로 통합토록 하겠다. 또한 농수산물 수송차량을 단협당 2대씩 지원(기 지원 2,227대, '90계획 270대)하여 수송체계 개선에 더 한층 노력할 계획이다.

바. 도매시장 건설촉진및 운영 정상화

서울, 중부, 호남, 영남등 4대 권역별 거점시장(6대 도시)과 보완시장(도청소재지)의 조기건설을 추진함과 아울러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능을 활성화하고, 채소류 반입물량 전량을 상장하여 경매토록하며, 세제등 보완대책도 강구해 나갈것이다.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내에 저온저장고(2,000 평규모)를 설치하여 과잉 반입시 수매저장후, 가격 상승시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양곡·채소류 위주의 농협공판장 운영체계를 채소류도 취급토록 개선해 나가겠다.

사. 대도시 농산물 직배송센터 건설

서울 양재동에 1,300평 규모의 농산물직배송 센터를 조기완공추진으로 산지직반입, 선별·소포장하여 대량수요처와 슈퍼등에 직접공급하고 서울 중계동에 4,000평 규모의 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여 시범 소매점과 연계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 소매단계 유통체계 개선 추진

농협 슈퍼마켓을 현 37개소에서 90개소로 증설하며 시범 소매점을 전국10,000개소에 지정하여 비축농산물등 농산물 전문판매점으로 육성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도 일부 지원할 것이다. 또한 지방지치단체가 유통부문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것이다.